

“하늘 위나 하늘 아래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미약히 편안케 하리라”
- 태자서용본기경 -

현대불교

불교하는 불교 시사선언 02-745-8503
이 1) 286-2680 서울 삼복고성북부
실상선원 041) 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선죽사 대한논산시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1일 화요일(주간) 제 317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종교계 손잡고 '국토청정'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소속 환경단체들이 범종교적으로 연대기구를 결성해 환경운동에 적극 나선다.

불교환경교육원을 비롯 원불교 천지보존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종교간 환경운동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 '종교환경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2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출범할 종교환경단체협의회는 각 단체인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교환을 비롯해 지리산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등 환경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등을 모색하게 된다.

기존의 연대기구처럼 이름만 띄우는 방식을 자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가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는 이 협의회는 각 교단의 종교시설과 신도들을 활용한 환경운동 캠페인 및 교육, 종교사상에 입각한 세미나 개최, 환경윤리강령 채택 등 종교사상에 입각한 생명운동을 결집 예정이어서 환경운동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지침 제시 등의 활동은 무분별한 종교시설 증축과 건립 등으로 그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종교계의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9일 국정홍보처의



을 전개해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일 것인 기대감이 높다.

이 협의회의 간사단체인 불교환경교육원의 유정길 사무국장은 "종교간 상호이해의 계기가 될 이 협의회의 발족은 지난해 시작된 지리산댐 백지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에 종교계가 동참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면서, "종교계의 풍부한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으로 시민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사회·문화 제현상 포용 불교학 영역 확대”

本紙 초파일 특별 좌담 참석자 한목소리

불교 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온 지난 세기의 학문 틀에서 벗어나, 여타 학문이나 사회와 문화의 제 현상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가 4월 21일 '불교학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신규파 교수(연세대)는 "불교는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종교가 돼야 한다"며 "불교학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 즉, 현실에 관심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우성 교수(경희대)도 "불교학은 이제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 속에서 역동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은 삼과 수행의 구체적인 공간인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깨달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역시 교리의 분석에만 의존해 풀기보다는 사회나 문화와의 연관성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깨달음의 문제는 수행뿐만 아니라

관련기사 5·6·7면

라 현실적 삶의 문제와도 긴밀히 얽혀 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가 사회와 문화 현상에 주목하는 방법으로써 응용불교를 생각할 수 있다"며 "불교 자료를 우리말로 옮기고, 전산화 등을 통해 응용불교학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교수(중앙대)는 "다문화 정보화로 말할 수 있는 21세기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응용불교학은 필요하다"며 "타학문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제간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0년 간 발간된 6만 3천여 권의 불교학 논저 중 50% 이상이 역사, 사상, 인물, 종단사를 밝히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응용불교는 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그 방법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eou@buddhapia.com)



4월 29일 서울 용두문운동장-조계사에서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진 제등행진에 참가한 10만여 불자들이 각종 장엄물과 연등을 밝혀 행진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연등축제 10만불자 동참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5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날을 기렸다.

법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대형 장엄물과 오색깃발을 앞세우고 조계사 앞까지 제등행진을 벌였다.

이날 날 12시부터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불교단체들이 연등반을 기. 전통문양 탁본 체험마당, 목탁 전시, 우리농산물 장터 등을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부산 대구 광주와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28, 29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정성은 기자

60여 도시서 제등행진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4월 29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스님 신도 등 10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펼쳐졌다.

“불교는 나라의 버팀목”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일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불교는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종교이며, 높은 정신적 성취를 통해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지금도 우리 불교는 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심오한 지적 진리와 참의성의 전통과 화합단결의 역사가 이끌어온 불교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기자

“화합 상생의 시대 열자”

전국사암 봉축법요식

불기 2545년 봉축법요식이 1일 서울 조계사의 봉원사 관문사 탐주심인당을 비롯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으로 시작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 김종호 총재관한대행,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복, 헌화, 봉축사, 김대중 대통령 봉축메시지 낭독, 법어 봉독 등의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장군죽비

- ◇ 달리는 불심-운전불자연합회'를 비롯 직장·직능 불교단체들이 전문성을 활용한 대사회봉사에 적극 나섰다. (9면)
- ◇ 안방에서 부처님을 만나세요. 인터넷 불교와 '현대불교신문'이 펼치는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 열기 확산. (15면)
- ◇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히는 종로거리 환희심으로 가득, 이 땅이 곧 희망임을 비로소 알겠네. (20-21면)
- ◇ 부처님 품속 문화유신 도난범들에 무방비 노출, 탐심으로 가득한 시대의 검은 손에 부처님 가슴은 어떻게 가는데... (39면)

부처님 오신날 특집 40면 발행

- 이 난국, 부처님 처방은 3면
- 한국불교학 어제와 오늘 5면
- 좌담 불교학이 가야 할 길 6·7면
- 1사찰 1홈페이지 운동 '확산' 15면
- 시방세계 무문관 웅맹정진 17면
- 가까이서 본 르스님 관음 스님 18·19면
- 연등축제 화보·이모저모 20·21면
- 책으로 만나는 부처님 23면
- 佛田3대 권정화씨네 24면
- 불교동화 나는 어른들이 읽다 35면
- 최서남단 가거도의 초파일 38면

지역불교 문화기행 4면 | 다음주 신문 쉽니다



"봉축" 부처님 오신날!
고마우신 분들께 사랑을 전해주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mm~265mm)

- 천연가죽 뉴백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나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 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큰가판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02-320-0602~3
- 유통 지점: 02-320-0795
- 동서울지점: 02-320-0622
- 남서울지점: 02-320-0781 (대전영업소: 042-582-1892)
- 호남 지점: 062-511-8377
- 영남 지점: 051-309-7112 (대구영업소: 053-964-5476)



성불화-자비로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대)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 02-863-2566
www.treksta.co.kr